



보도자료

- 수신 : 언론사 출판담당기자
- 배포 : 2020. 10. 27. (화)
- 총 2 페이지



대한출판문화협회

업무담당: 국제교류센터 김한누리 대리
 02-733-8402(내선 9913) hnrkim@kpa21.or.kr
 홍보담당: 교육홍보팀 양창섭 팀장
 02-733-8402(내선 9971), csyang@kpa21.or.kr

‘업힘’의 책 축제, 2020 서울국제도서전 폐막

지난 10월 16일(금)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세상에서 열린 2020 서울국제도서전이 25일(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와 서울 곳곳의 서점·문화 공간을 연계하여 분산형 축제로 진행된 이번 도서전에는 198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32곳의 서점과 문화공간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8개 출판사의 디지털 전시와 도서전 기획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도서전 웹사이트에는 열흘간 2만여 명의 방문자와 21만 회의 페이지 뷰 수를 기록하며 도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200여 명의 작가와 인문, 사회, 과학, 예술가가 참여한 강연과 대담 프로그램은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 또는 녹화를 통해 도서전 웹사이트와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총 3만2천 뷰를 돌파하였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한 인류를 되돌아보는 인류세와 기후변화 등의 프로그램, 추리·미스터리·호러·스릴러 등 장르문학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강연 등이 관심을 끌었다.

오프라인 도서전의 거점 공간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전시와 강연, 대담 프로그램도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1층의 ‘업힘’ 주제 책 전시는 각 출판사가 출판한 책들을 전시하였으며, 디지털 북 전시는 21세기 디지털 북의 변화를 연대기로 구성하여 그 변천사를 읽어내게 했다. 서울시내 곳곳의 작은 서점과 문화공간으로 독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한 <책도시산책>도 좋은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준비한 프로그램



이지만 열성적인 독자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며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내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진행 방식은 가변적이지만 올해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 서울국제도서전 온라인 전시 및 강연, 대담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말까지 도서전 웹사이트(<http://sibf.or.kr>)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끝>